

음악 문해력 관점에 의한 초등학교 3학년 음악 지도서 분석*

Analysis of Teachers' Guidebooks of Music for 3rd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based on Music Literacy

민병선** · 백재연***

Byeongsun Min · Jae Yeon Paik

초록 본 연구는 음악 문해력 관점으로 음악 지도서의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 문해력 향상을 위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음악 문해력 관련 논의들을 고찰하고 음악 문해력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살펴본 후 초등 3학년 제재곡을 음악 요소와 개념별로 범주화하여 음악 지도서 활동 내용에 적용된 기능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음악 교과 교육의 탐구과정 및 사고 과정인 기능은 음악적 활동이 풍부한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음악적 이해를 돕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음악 문해력 신장을 위해 음악 요소와 개념적 이해는 물론 음악 고유의 사고 능력인 기능이 활동 속에서 역동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제어: 기능, 미국핵심음악기준, 음악 문해력, 음악 요소와 개념, 성취기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ivities presented in the music guide book by from the viewpoint of music literacy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eachers to design music classes to improve music literacy. For this study, researches of the music literacy were reviewed, and the curriculum aimed at music literacy was examined. And based on this data, songs from the 3rd grade music textbook were categorized by music element and concept and analyzed the functions applied to the activities from music guide book. *As a result, the function, the function of music education's inquiry and thinking processes was helping students understand music in classes in musical activitie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o enhance student's abilities of music literacy, not only understanding musical elements and concepts, but also 'function' which is music's unique thinking ability, should operate dynamically in music activities.

Key words: function, national core music standards, music literacy, music elements and concepts, achievement standards

* This study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based on Byung-sun Min's master's thesis.

** First author, E-mail: minisun70@naver.com

Head Teacher, Seoul Inhun elementary school, 23 Nakseongdae-ro, Gwanak-gu, Seoul,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ypaik@snue.ac.kr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I. 서론

음악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음악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예술을 향유하면서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추구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학생들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고 문화적 소양을 키우며 향유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음악에 반응하며 그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해력(NATME, 2014)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음악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음악적 문맹(Brown, 1947) 상태의 학생들을 목격하게 된다. 글을 이해하기 위해 기초적인 능력 이상의 문해력이 요구되는 것처럼 음악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커뮤니티 속에서 예술 문화에 참여하기 위해 음악 문해력은 학교 음악수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Choi, 2017, p. 64).

최근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교육과정과 세계 주요 기관들(OECD, EU, PS21 등)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에는 다양한 리터러시 교육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Oh, 2018a; 602). 우리나라도 그 당위성을 인식하고 조명한 연구(Choi, 2017; Park, 2017; Oh, 2018b; Yoon, 2020)가 음악 문해력에 대한 의미와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관점이 코다이가 강조한 음악적 텍스트를 읽고 쓰는 능력으로 보는 관점과 역량으로 보는 관점으로 양분되어 있다. 특히 음악 수업에서 음악 문해력을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음악 수업을 설계하는 교사들에게 음악 교육과정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의 음악 문해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음악 문해력은 음악 수업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기에 교사들이 음악 문해력을 이해하고, 현 교육과정 안에서 음악 문해력 기반의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음악 문해력 관점으로 음악 지도서에서 제시한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음악 문해력 향상을 위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첫째, OECD의 DeSeCo 프로젝트 문해력 정의와 그에 관한 변화를 살펴본 후 해외 학자들이 설파했던 음악 문해력에 관한 논의들을 시대별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음악 문해력의 개념과 관점을 설정한다. 둘째, 음악 문해력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국가핵심음악 기준과 우리나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살펴 음악 문해력 신장을 위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본다. 셋째, 음악 문해력 관점으로 음악 교과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배우는 제재곡에 반영된 음악 요소와 개념을 살펴보고 음악적 개념 이해를 돕는 음악 고유의 사고 능력인 기능이 지도서별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악 문해력(Music Liter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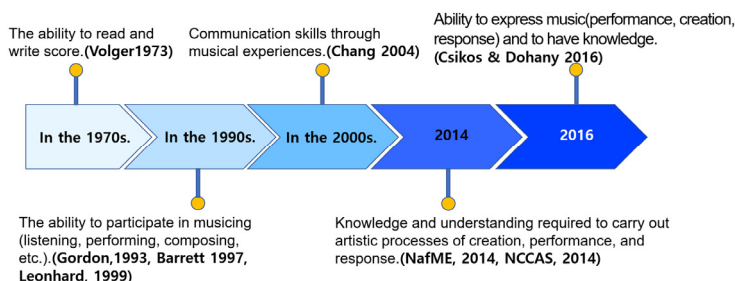
리터러시(Literacy)는 중세 시대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학식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라틴어 ‘litteratus’가 그 시작이다. 종교 개혁 이후는 자신의 모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되었다(Yoon, 2009, p. 6). 하지만 과거의 글을 읽고 쓰는 문해력은 21세기를 관통하면서 텍스트의 다양화와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그 정의가 확장되며 진화하고 있다. 유네스코(UNESCO)와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가 정의한 문해력은 역량의 한 범주로 설명하고 있다.

유네스코(UNESCO)는 다면적 측면의 문해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양한 맥락에서 문자를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 이해, 생산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이며, 공동체 구성원으로 삶의 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측면의 문해력을 강조하였다(Kim, 2015, p. 44). OECD는 특정한 능력과 행동 양식(a particular capacity and mode of behavior)으로 일상생활, 가정, 직장,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능력(Kim & Eom, 2020, p. 18-19)으로 행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해력의 변화가 음악 문해력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볼거(Volger, 1973)는 음악적 성취의 기본 요소인 음과 리듬에 대한 문해력으로 음악의 기호를 읽고 쓰는 능력과 더불어 음악적으로 듣고 느끼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레빈슨(Jerrold Levinson, 1990)은 내가 예전에 들었던 음악과 지금의 음악과의 연관성을 찾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청취자(comprehending listener)가 가진 능력으로써 음악 문해력 용어를 사용하였다. 고든(Gordon, 1993)은 음악 리터러시는 이해력을 가지고 듣고, 연주하고, 읽고, 쓰는 능력임을 강조하였다. 바렛(Barrett, 1998)은 기보법에 내재된 것 이상의 다양한 음악적 과정과 관행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음악적 관행에 작곡, 편곡, 즉흥 연주, 지휘, 공연을 포함시켰다(Broomhead, 2019, p. 5). 레온하드(Leonhard, 1999) 역시 연주, 듣기, 작곡 및 즉흥 연주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음악 문해력 용어를 사용(Broomhead, 2019)하여 바렛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위긴스(Wiggins, 2001)와 케이티(Katie, 2015)는 음악이 발생한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이해하는 음악적 이해능력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분야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맥락적 이해를 강조하였다(Oh, 2018; 재인용, p. 605). 창(Chang, 2004)은 악보체계의

음들을 확인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징을 통해 음악적 의미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음악적 경험을 통해 인간의 사고를 공유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음악 문해력을 설명하였다(Chang 2004; Choi, 2017 재인용). 텔퍼(Telfer, 2006)는 음과 리듬을 읽는 것에서 ‘음악의 의미’를 읽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장 시켰으며, <What is Music Literacy?> 저자 브룸헤드(Broomhead, 2010)는 악보를 읽는 능력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텍스트와 듣기, 연주하기, 창작하기, 숙고하기를 통해 음악과 상호소통하는 능력, 또는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음악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음악 문해력임을 그의 저서에서 강조하였다. 음악 문해력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음악과 교육과정은 창작, 연주, 반응의 예술적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음악 분야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로 정의하였다(NAFME, NCCAS: Oh, 2018a). 크시코스와 다우니(Csikos & Dohany, 2016)는 음악 문해력이란 문화적으로 결정된 시스템으로 음악적 표현 능력(연주, 창작, 반응)과 함께 음악적 능력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겸비한 소양이라고 하였다.

음악을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춰 음악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서양의 음악과 연주자들의 음악적 아름다움에 감탄할 줄 아는 능력(Kokkidou, 2018; 재인용)으로 해석되던 관행은 서양 음악학적 전통에서 비롯되었다(Barrett, 1998).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텍스트를 가지지 않은 소수민족음악가, 악보가 없었던 시대를 살아간 음악가, 구전에 의해 음악을 했던 음악가, 악보에 의존하지 않는 오늘날 소수 음악가들의 음악 문해력을 설명하지 못한다. 악보는 음악적 아이디어를 인코딩하고 저장하는 수단일 뿐, 음악은 소리로 실현할 때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음악 표기법 사용 능력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음악사고 과정과 관행(Practices)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되어야 한다(Barrett, 1998). 음악적 활동 과정에 참여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은 오늘날 역량을 반영하여 음악가처럼 반응하고 참여하며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음악 문해력에 관한 정의를 시대순으로 도식화하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 Music literacy change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세계적으로 역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듣기능력, 창작능력, 연주능력 등 음악 고유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은 ‘standard’ 용어를 사용, 국가 수준의 질 관리와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Choi, 2015a, p. 80). 1994년에는 목표 2000 교육 개혁 법안을 입법화하여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수준을 국가가 제시하였고, 음악교육자 전국 회의(MENC)가 주도하여 음악 교과 기준을 마련하였다(Choi, 2008, p. 144-145).

2. 음악 문해력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

1) 미국핵심음악기준

1994년 미국 음악교육자 전국회의(The United States’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는 음악 활동 및 기술에 대해 9개의 성취기준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Table 1> 9 standards achievement by national associate for music education in 1994 (Broomhead, 2019)

Musical activities and standard achievement	Type of participation
1. Singing alone and with others, a varied repertoire of music.	Performer
2. Performing on instruments, alone and with others, a varied repertoire of music.	
3. Improvising melodies, variations, and accompaniments.	Composer
4. Composing and arranging music within specified guidelines.	
5. Reading and notating music.	Performer
6. Listening to, analyzing, and describing music.	Listener
7. Evaluating music and music performances.	
8. Understanding relationships between music, the other arts, disciplines outside the arts.	Thinker
9. Understanding music in relation to history and culture.	

1994년 미국 음악교육자 전국회의에서 발표한 음악 활동 및 기술은 4가지의 음악가의 유형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음악 활동 및 기술 성취기준 1, 2, 5는 연주자 유형으로 공연 활동이다. 음악 활동 및 기술 성취기준 3, 4는 작곡가 유형으로 편곡과 작곡 활동이다. 음악 활동 및 기술 성취기준 6, 7은 감상자 유형으로 감상 활동이다. 음악 활동 및 기술 성취기준 8, 9는 사고하는 사람 유형으로 맥락적 이해, 역사 혹은 문화와 음악을 관계지을 수 있는 활동으로 분류 할 수 있다(Broomhead, 2019, p. 4).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음악 활동 및 기술 성취기준 5 ‘음악 읽고 쓰기’를 연주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음악 문해력이 추상적 개념이 아닌 학생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능력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4년 NAfME(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의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에서도 눈에 띄게 반영(Broomhead, 2019, p. 4)되었고, 음악가들이 음악에 참여하는 실제 과정을 포함하면서도 음악적 개념 이해를 강조하였다.



[Figure 2] 2014 NAfME Music Stand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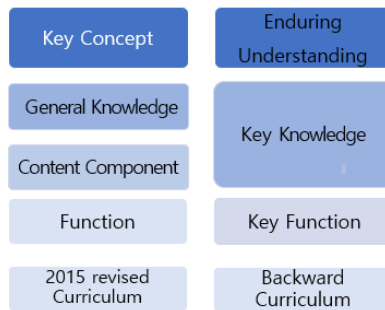
2014년 NAfME는 음악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음악가들의 행동 유형인 연주하기, 창작하기, 반응하기를 음악 문해력의 중요한 축으로 구성하였고 이는 미국핵심음악 기준에 반영되었다. 미국핵심음악기준은 각 영역별 주요 기준이 제시되고, 주요기준은 <Table 2>와 같이 음악 활동의 과정적 요소로 구체화 되었다.

<Table 2> National Core Music Standards(Choi, 2015)

Scopes	Anchor standards	Musical activities
Creating	1. Students can create and conceptualize artistic ideas and works.	Imagine
	2. Students can organize and develop artistic ideas and works.	Plan and make
	3. Students can modify and complete works	Evaluate, Modify, Resent
Performing	4. Students can select, analyze, and interpret artworks for performance.	Select, Analyze, Interpret
	5. Students can develop and modify artistic techniques and works for performance presentation.	Rehearse. Evaluate, Refine
	6. Students can convey their meaning through performance.	Present
Responding	7. Students can perceive and analyze works.	Select, Analyze
	8. Students can interpret the intention and meaning of works.	Interpret
	9. Students can apply standards to evaluate works	Evaluate

2)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구조

미국음악교육과정은 주요기준과 수행기준에 영속적 이해와 핵심질문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영속적 이해(Enduring understanding)란 개념적 여덟 장치, 핵심축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데 학습자가 교수·학습 상황에서 꼭 배워야 할 핵심(big idea)을 의미 한다(Lee, 2020, p. 14). 핵심 질문이란 음악적 주요 아이디어를 활용한, 학습자가 전이를 하는데 필요한 사고 촉발을 위해 사용하는 개방형의 때로는 반복적인 질문이다(Lee, 2020, p. 14). 영속적 이해와 핵심 질문으로 음악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모색한 미국 핵심음악기준 개발에는 맥타이와 위긴스 교육과정 개발 모형인 백워드 디자인이 그 배경이다. 이는 2015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주어 내용 체계는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내용 영역을 구성하였다. 이는 백워드 설계 모형의 영속적 이해, 핵심 지식, 핵심 기능에 해당된다(Choi, 2021, p. 191). 백워드를 기반으로 음악적 이해를 목적에 두는 미국핵심음악기준과 2015 개정 음악교육과정을 비교하면 [Figure 3]과 같다.



[Figure 3] 2015 Revised curriculum and backward curriculum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진정한 이해와 적절한 평가를 위한 방안으로 백워드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내용 구성 및 성취기준을 진술하였고(Lee et al., 2014), 성취기준은 내용 요소와 기능으로 그 위계를 나타내었다. 내용 요소란 학년(군)에서 배워야 할 필수학습내용으로 성취기준 문장 앞부분에, 기능은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한 능력으로 교과 교육의 탐구과정, 사고 기능 등을 포함(Ministry of Education, 2015)하며 성취기준 문장 뒷부분에 명시하였다.

<Table 3> Contents and functions of standard achie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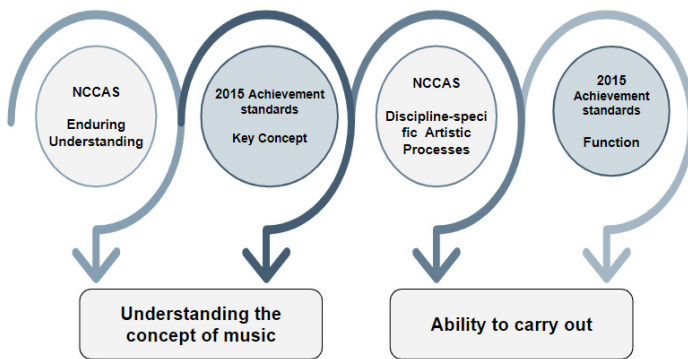
Scopes		Contents	Functions	
Expression	[4Mus01-01]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music	Sing or play with instruments	Singing and playing with an instruments
	[4Mus01-02]	Song that goes well with the music	Express with body	Expressing with body
	[4Mus01-03]	Change the lyrics of the song or add words that fit the lyrics	Make	Making
	[4Music01-04]	Change the rhythm of songs	Express	Expressing
	[4Mus01-05]	Search sounds in various ways	Express	Expressing
	[4Mus01-06]	Sing with the right posture and technique.	Play instruments	Playing instruments
Appreciation	[4Mus02-01]	Musical elements and concepts of for 3rd and 4th grades	Distinguish and express	Distinguishing and expressing
	[4Mus02-02]	Listen to music that expresses situations and stories	Present the feeling	Presenting
Practical application	[4Mus03-01]	Use music for events such as home, school, and community	Participate and present	Presenting and participating
	[4Mus03-02]	Use music for play	Present the feeling	Presenting
	[4Mus03-03]	Korean traditional music used in everyday life	Research and present.	Researching and presenting

3. 음악 문해력 관점

우리나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음악 문해력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핵심음악기준을 고찰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미국핵심음악기준은 백워드 설계 모형의 영속적 이해, 핵심 지식, 핵심 기능으로 구성되었고,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도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미국핵심음악기준은 학생성취기준을 수행기준으로 설정하여 제시(Seung et al., 2019a)하고 있고, 우리나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도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 ‘학습자가~할 수 있다’ 형태로 진술되어 학습자의 행동 방향을 제시(Lee et al., 2012, p. 131-132)하여 학생의 수행 능력을 증시한다. 넷째, 음악 개념과 음악 활동이 통합된 미국 국가핵심음악기준처럼 우리나라 역시 내용 요소와 기능이 결합 된 형태로 성취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음악 문해력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핵심음악기준과 상당 부분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과정 역시 음악적 이해를 위한 것이며 성취기준에 그 전략이 안내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음악적 수행 능력을 강조한 NAIME의 정의와 우리나라 성취기준의 진술 형태를 종합하여 본 연구를 위한 음악 문해력 관점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운 음악 문해력 관점은 ‘실제 음악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으로 음악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Figure 4]와 같다.



[Figure 4] Music literacy perspective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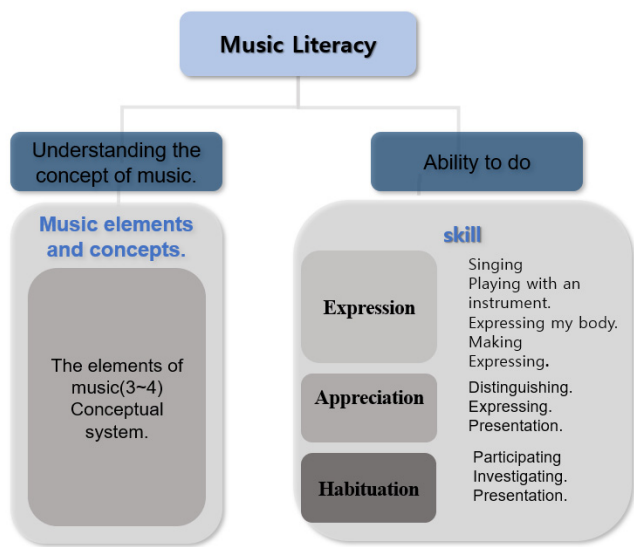
음악 문해력의 관점을 ‘음악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정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음악 지도서 3종을 분석하였다. 음악 지도서는 교사들의 참고자료로 음악적으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안내한다.

1. 연구 대상

분석의 대상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며 초등학교 3학년 음악 지도서로 정하였다. 음악 지도서 선정기준은 ‘음악 요소와 개념’과 ‘기능’이 단위 개관에 명시된 것으로 총 3종을 채택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세운 음악 문해력 관점에 따라 지도서를 분석하기 위해 제재곡을 ‘음악 요소와 개념’ 그리고 ‘기능’으로 [Figure 5]처럼 범주화하였고 초등학교 3학년 지도서 3종의 제재곡에서 반영한 음악 요소와 개념과 교수·학습과정에서 적용된 기능을 분석하였다. <Table 4> 분석틀은 전문가를 3인을 통해 검증한 후 적용하였다.



[Figure 5] Analysis category according to music literacy perspective

<Table 4> Analysis criteria

Scope	Contents of analyzing
Musical elements and concepts	What are the musical elements, concepts, and main learning contents reflected in the song?
Functions	What are the functions applied to understand music elements and concepts in the course of teaching-learning activities? What are the functions that students reflect a lot for their musical conceptual understanding?

3. 연구절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국내외 학자들이 논의한 음악 문해력의 정의 또는 의미를 알아보고 시대별로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음악 문해력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핵심음악기준을 비교하여 공통점을 살펴 음악 문해력 관점을 마련한다. 음악 문해력 관점에 의한 분석틀을 마련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음악 지도서를 분석한다. 음악 개념적 이해는 음악 요소와 개념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기능으로 보고 음악 지도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3-4학년 교육과정에서 국악 요소를 제외한 박과 박자, 음의 길고 짧음, 간단한 리듬꼴, 음의 높고 낮음, 차례가기와 뛰어가기, 소리의 어울림,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 등 모두 10가지 음악 요소와 개념들이 표현, 감상, 생활화의 11가지 기능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음악 요소와 개념과 기능의 반영 양상 분석

1) 박, 박자(Beat and Meters)

일정박 관련 활동들은 폭넓게 나타나고 있었다. 수업 도입 부분에 일정박을 치며 듣기, 일정박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걷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자표는 $\frac{2}{4}$ 박자, $\frac{3}{4}$ 박자, $\frac{4}{4}$ 박자와 셈여림을 학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도서별 박, 박자 관련 학습 내용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Learning beat and meters

Publisher	Content
A	Steady beat, one beat, $\frac{2}{4}$ & strong and weak beat $\frac{3}{4}$ & strong and weak beat, $\frac{4}{4}$ & strong and weak beat.
B	Steady beat, $\frac{2}{4}$ & strong and weak beat, $\frac{3}{4}$ & strong and weak beat, $\frac{4}{4}$ & strong and weak beat, $\frac{6}{8}$.
C	Steady beat, $\frac{2}{4}$ & strong and weak beat, $\frac{4}{4}$ & strong and weak beat.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 요소와 개념은 시각적, 청각적, 신체적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도(Ministry of Education, 2015)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용 체계의 영역별 기능을 반영하여 음악 요소와 개념을 활동과 연계하여 학습하여 그 개념을 형성하고, 표현(Ministry of Education, 2015)하도록 하였다. 지도서별 박, 박자 이해에 적용된 기능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Main function of beat and meters

Publisher	Expression					Appreciation			Practical application		
	Singing	Playing instruments	Expressing with body	Making	Expressing	Distinguishing	Expressing	Presenting	Participating	Researching	Presenting
A	7	2	1	4		1					2
B	5	2	3	1					3		
C	4	1	2	1	2						
sum	16	5	6	6	2	1			3		2

박과 박자를 반영한 제재곡에서 노래 부르기 기능이 압도적으로 적용되었고, 생활화 영역이지만 노래 부르기 또는 신체표현하기 기능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음악 놀이 활동에는 참여하기 기능을 더욱 강조하였다. 감상 영역 제재곡이지만 표현 영역 기능만을 적용하기도 하고, 표현 영역일지라도 감상, 생활화 영역의 기능을 적용하였다. 대부분의 제재곡들이 2~3가지 기능들을 적용했는데 이는 노래, 신체표현, 악기연주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제재곡의 일정한 박의 흐름을 체득한 후, 박자의 규칙적 셈여림을 신체, 악기를 활용하여 표현하도록 하였다. 일정박 치기를 선행 배치하고 감상활동, 노래부르기 활동, 놀이활동에서 박자의 구성과 셈여림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박과 박자의 개념 학습을 위한 주요 활동은 일정박 치며 노래 듣고 부르기, 셈여림 살려 노래 부르기, 신체표현하기가 있고, 강박과 약박을 느끼며 걷기, 박자의 셈여림 살려 악기로 연주하기 등이다. 학생들은 박과 박자 개념 이해를 위해 노래 부르기를 수행하거나 신체표현 또는 만들기를 수행하도록 안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음의 길고 짧음(Long and Short of Notes)

‘음의 길고 짧음’은 초등 3~4학년에만 해당한다. 초등 3학년의 경우 음표와 쉼표 기호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를 안내하는 활동들을 지도서마다 발견할 수 있었다. A출판사는 5개의 제재에서 음의 길고 짧음을 반영하고 있는데 도입 단원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B출판사는 음표와 쉼표 길이 소개와 함께 직접 그려보는 활동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C출판사는 음표의 길고 짧음을 신체 표현으로 체득한 후, 노래에 맞추어 신체표현하고, 노래 부르며 리듬 반주를 하는 단계적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Table 7> Learning notes and rests

Publisher	Contents
A	Notes(♩, ♪, ♫), Rests(♩, ♪, ♫) Rhythm for each letter of a song, Dotted notes(♩.)
B	Staccato, Long and short notes by Kodaly rhythm Notes(♩, ♪, ♫), Rests(♩, ♪, ♫)
C	Notes(♩, ♪, ♫), Rests(♩)

초등학교 3학년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음표와 쉼표 종류는 온음표(쉼표), 2분음표(쉼표), 4분음표(쉼표), 8분음표(쉼표)이다. 음표와 쉼표를 처음 접하는 초등3학년 학습자들을 위해 음의 길고 짧음 개념 이해를 돕는 기능은 <Table 8>과 같다.

<Table 8> Function of notes value

Publisher	Expression					Appreciation			Practical application		
	Singing	Playing instruments	Expressing with body	Making	Expressing	Distinguishing	Expressing	Presenting	Participating	Researching	Presenting
A	2	2		1		1	1	1	None		
B	3	3	2	3		1		1			
C	1	1	1			1	1	1			
sum	6	6	3	4		3	2	3			

A출판사의 경우 노랫말을 음표의 길이와 연관 지은 「음표 노래」를 제시하고, 그림 악보를 통해 노랫말이 가진 음의 길이를 시각적으로 구별하도록 하였다. 또한 만들기를 적용하여 8분음표와 8분 쉼표로 일정박 단위인 한 박을 만들도록 하였다. A와

C출판사의 경우 리코더 제재곡에서 이 개념이 반영하였기 때문에 악기로 연주하기 기능을 적용하였다. B출판사는 걷기, 손뼉치기 등 신체표현하기를 적용하였다. 주요 활동에서 기능이 제시될 때 두 가지 기능이 결합되거나 심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엔 음의 길고 짧음을 ‘구별하기-> 구별하며 신체표현하기->구별하며 리듬 연주하기’ 등으로 확장되면서 심화 되고 있다. 또한 음악의 길고 짧음 이해를 돕기 위해 코다이 리듬 음절을 적용하였다. 음악의 길고 짧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들은 리듬 음절을 노래로 부르거나 선율 악기 또는 무선율 악기 등으로 연주 하며 개념을 습득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3) 간단한 리듬꼴(Simple Rhythm Pattern)

리듬꼴은 리듬 패턴이라고도 하며 악곡의 박자를 기반으로 길고 짧은 음들이 모여 구성되는 리듬의 모양을 의미한다(Seung et al., 2019b). 지도서를 분석한 결과 초등 3학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간단한 리듬꼴은 제재곡의 주요 리듬꼴이며 주로 8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를 조합한 리듬 패턴들이다. 간단한 리듬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능은 <Table 9>와 같다.

<Table 9> Function of simple rhythm pattern

Publisher	Expression					Appreciation			Practical application		
	Singing	Playing instruments	Expressing with body	Making	Expressing	Distinguishing	Expressing	Presenting	Participating	Researching	Presenting
A	3	1	1	1							
B	2	1	1						1		
C	4	2		1		1	2	1			
sum	9	4	2	2		1	2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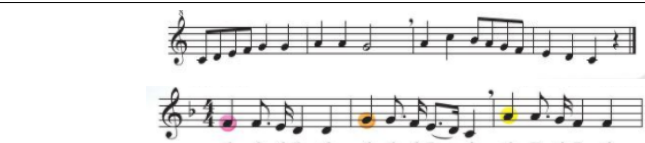
B출판사의 음악과 함께 놀아요 제재곡은 생활화 영역으로, 신체표현하기와 더불어 참여하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화 영역의 발표하기는 활동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평가의 진술문에만 반영되었다. C출판사 「음악으로 가는 시계」는 감상 영역으로 표현하기, 발표하기, 구별하기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구별하기는 평가의 기준에만 반영하고 있었다. 앤더슨 곡 「고장 난 시계」를 감상하고 몸, 악기, 도구, 그림 그리기 방법으로 표현하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리듬꼴 유형을 살펴보면

리듬 반주하며 노래 부르기, 리듬꼴 연주하며 노래 부르기, 리듬을 바꾸어 노래 부르기 등이 있다. 악기로 연주하기 기능은 리듬꼴을 악기로 연주하기, 바꾼 리듬꼴을 연주하기, 리듬꼴을 합주하며 연주하기 등이 있었다. 신체표현하기 기능은 주요 리듬꼴을 손뼉 치기, 신체표현하기 등이다. A출판사 「솜사탕」 제재곡은 만들기 기능을 제시 했는데 $\frac{4}{4}$ 박자 리듬꼴을 만들기 후, 노랫말을 붙이면서 노래 부르기를 유도하고 있다. C출판사 「4박자 리듬꼴」은 리듬꼴 만들기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것을 다양한 타악기로 연주하며 마무리 하였다. 따라서 간단한 리듬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들은 리듬꼴을 만든 후 악기로 연주하기, 신체로 표현하기 기능과 함께 수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음의 높고 낮음(Pitch of the Notes)

‘음의 높고 낮음’은 초등3~4학년에 해당되며 초등5~6학년에서는 음이름, 계이름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다양한 음들이 횡적으로 연결되어 가락이 형성된다. 음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것은 청음 능력이라 할 수 있으며 많은 음악 학자들이 이러한 청음 향상을 돕는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제안하였고, 마음속으로 노래하며 듣는 내청(inner hearing) 훈련을 중시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음의 높고 낮음의 학습 범위와 학습 내용은 <Table 10> 과 같다.

<Table 10> Learning pitch of the notes

Publisher	Contents
A	
B	
C	

B출판사는 총 5개의 제재곡에서 음의 높고 낮음을 다루고 있는데 표현 영역 제재곡 3개, 감상 영역 2개 제재곡에서 반영하고 있다. A와 B출판사 모두 감상 영역을 다루었고, 감상 후 악곡에서 느낄 수 있는 음의 높고 낮음을 즉흥적으로 신체나 그림,

기호로 표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C출판사는 표현과 감상 영역에서 반영하고 있다. 세 출판사가 공통으로 음의 높고 낮음과 음의 길고 짧음 개념을 함께 반영하였다. 또한 활용 악기는 리코더, 음판 악기이다. 특히 단계적 리코더 운지법 활동은 악기 탐색 활동이자 학생들에게 소리의 높고 낮음을 익히는 활동이었다. A와 C출판사의 경우 음의 높고 낮음을 독립 단원으로 마련해 놓았다. 게이름에 맞게 색칠하기, 실로폰으로 음의 높고 낮음 경험하기, 신체로 게이름 표현하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음의 높고 낮음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능은 <Table 11>과 같다.

<Table 11> Main function of note pitch

Publisher	Expression					Appreciation			Practical application		
	Singing	Playing instruments	Expressing with body	Making	Expressing	Distinguishing	Expressing	Presenting	Participating	Researching	Presenting
A	2	3	2			1	2	2	None		
B	3	3	2	2		1		1			
C	1	1	1			1	1	1			
sum	6	7	5	2		3	3	4			

총 14개의 제재 노래 부르기는 6개, 악기로 연주하기는 7개 제재곡에서 반영되었고, 대체로 기능 1~3개가 중복 적용되고 있다. B출판사의 감상 영역의 제재곡임에도 표현 영역 기능만을 적용하고 있었다. 악기의 경우 A와 C출판사는 리코더와 실로폰을 활용하고 있고, B출판사의 경우는 리코더를 활용하고 있다. 실로폰으로 음판의 위치에 따라 음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활동이 안내되고 있다. 가락선 그리기를 통해 시각적으로 음의 높낮이를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노래부르기 기능이 적용되고 있다. 표현하기의 경우 음악을 듣고 점, 선, 그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학생들은 악기로 연주하며, 노래 부르며 신체표현하며 음의 높고 낮음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하도록 안내되고 있었다.

5) 차례가기 뛰어가기(Stepwise and Leap Progression)

차례가기는 음의 순차 또는 하행 가락이고, 뛰어가기는 음의 도약 진행이다. 차례가기와 뛰어가기는 초등학교 3~4학년군에만 반영되는 음악 요소와 개념이다. 하지만 이를 반영한 제재곡은 3개에 불과하다. A출판사 「종달새의 하루」는 종달새의 움직임

을 모습을 표현한 노랫말과 가락의 관계를 통해 차례가기와 뛰어가기 이해를 돕고 있는데 가락선을 그리며 노래 부르기를 제시하고 있다. B와 C출판사 「가을바람」 제재곡에서 차례가기와 뛰어가기 음의 길고 짧음 개념을 병행하여 반영하였다. C출판사 역시 「가을바람」을 채택하고 있고, 독립 단원으로 마련해 놓고 있었다. 출판사 별로 각 1개 제재곡에서만 반영했고 모두 표현 영역이다. 주요 활동에서 적용된 기능은 <Table 12>와 같다. 노래 부르기는 대체로 가락선 그리기 활동을 선행 배치하였다. 악기로 연주하기 기능은 멜로디언을 활용하고 있다. 차례가기와 뛰어가기 음악 요소와 개념은 노래 부르기와 악기로 연주하기를 수행하면서 이해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나 반영된 제재곡의 수가 적고 감상과 생활화 영역에서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Table 12> Function of stepwise and leap progression

Publisher	Expression					Appreciation			Practical application		
	Singing	Playing instruments	Expressing with body	Making	Expressing	Distinguishing	Expressing	Presenting	Participating	Researching	Presenting
A	1					None			None		
B	1	1		1							
C	1	1									
sum	3	2		1							

6) 소리의 어울림(Harmony of Sound)

화음은 높이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것이며, 이러한 화음들이 구조적으로 연결된 것이 화성이다(Seung et al., 2019b). 소리의 어울림은 음악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로 학생들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지만 지도가 어려워 세심한 준비와 노력이 각별히 필요한 부분이다. 소리의 어울림을 반영한 제재곡의 주요 학습 내용은 <Table 13> 과 같다.

<Table 13> Main content of learning about the harmony of sound

Publisher	Learning contents
A	• The harmony of sounds that you feel at family events using music. • The harmony of sound by the spinning song. • The harmony of the sound during the performance • The harmony of the sound by the recorder duet and instrumental ensemble.
B	• The harmony of sounds from listening to music. • The harmony of the sound by the spinning song. • The harmony of sounds that occur when expressing the sounds of nature with voices, musical instruments, and objects. • The harmony of the sound that occurs when a song and recorder are played together. • The harmony of sounds that occur when singing to various rhythm instruments. • Recorder, handbell, sound instrument. The harmony of sounds. • Rhythmic instruments that match the lyrics. The harmony of sounds by ensemble.
C	• The harmony of sounds through rhythmic instruments. • The harmony of the sound by the spinning song. • The harmony of the sound by the recorder duet and instrumental ensemble.

A출판사의 경우 대체로 형식, 빠르기, 셈여림 등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함께 반영하였다. 주로 돌림노래, 리코더 2중주, 기악 합주하며 정련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제재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화 영역은 음악회 또는 발표회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소리의 어울림을 경험하게 하였다. B출판사는 주로 악기, 노래, 물체 등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활동과 함께 음색을 경험하도록 제시하였다. 돌림노래, 리코더 2중주, 리코더와 노랫소리의 어울림, 리듬 반주 어울림, 리듬 악기 합주에 의한 어울림 활동을 제시하였다. A와 C출판사는 노래와 악기의 어울림을 위한 제재곡을 따로 구성해 놓은 반면, B출판사는 노래와 악기가 함께 연주되면서 발생 되는 소리의 어울림 활동도 제시하고 있다. C출판사의 경우 소리의 어울림을 단독 제재곡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세 지도서 모두 돌림 노래를 공통으로 활용했고, 리코더 2중주와 기악 합주에서 경험되는 소리의 어울림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리의 어울림 개념 이해를 돕는 기능은 <Table 14> 와 같다.

<Table 14> Main function of the harmony of sound

Publisher	Expression					Appreciation			Practical application		
	Singing	Playing instruments	Expressing with body	Making	Expressing	Distinguishing	Expressing	Presenting	Participating	Researching	Presenting
A	2	2	1	1				2	2	1	2
B	7	7	5	3	1	2		2			
C	3	5		1							
sum	12	14	6	5	1	2		4	2	1	2

소리의 어울림 개념을 반영한 제재곡의 수는 다른 개념에 비해 많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기로 연주하기, 노래 부르기, 신체표현하기, 만들기 기능이 다른 기능보다 현저히 많이 적용되고 있었다. A출판사 생활화 영역 제재곡은 주변 음악 행사에 대한 조사 활동을 유일하게 포함하고 있었다. 가족 음악회에 참여하는 활동, 학생들이 음악회를 위한 기악합주 활동을 위해 정련하는 과정에서 소리의 어울림을 경험하게 하였다. 노래 부르기는 돌림 노래 부르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음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악기로 연주하기의 경우 리코더 2중주 연주를 통해 느낄 수 있는 화음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B출판사는 음색과 병행하여 반영하여 다양한 악기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신체와 노래, 악기와 노래, 리듬 반주와 노래, 합주에 의한 어울림 등 다양한 어울림 활동을 안내하고 있다. 기악 활동의 리듬 악기는 큰북, 작은북, 탬버린, 케스터네츠, 트라이앵글, 귀로, 슬레이벨, 우드 블록, 쟁배, 마라카스, 리듬 스틱이 있고, 가락 악기로는 핸드벨과 리코더, 음판 악기는 실로폰을 활용하였다. 리코더를 처음 접하는 초등 3학년을 위해 리코더의 구조, 악기 연주를 위한 바른 자세 및 텅잉주법으로 시작하여 왼손과 오른손 운지법으로 그 음역을 확대하고 여러 명이 함께 소리의 어울림을 만드는 수준까지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악기 연주하기를 수행하거나 돌림노래 부르기를 통해 ‘소리의 어울림’을 경험하며 이해하도록 안내되고 있었다.

7) 형식(Form)

악곡의 전체적 구조를 형식(form)이라고 한다. 동기는 두 마디 정도의 가장 작은 단위로 주요 동기들은 반복, 축소, 확대, 변형되면서 전체를 구성한다. 두 개의 동기 결합 된 형태인 작은악절은 악구라고 불린다. 4마디 혹은 한 두 마디 정도가 불규칙하

게 증가 되기도 한다. 작은악절 두 개가 결합 된 큰악절은 한도막 형식이라고 하는데 반복되거나 살짝 변용된 형태 또는 서로 대조되는 형태의 구조를 갖는다. 지도서별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Table 15>와 같다.

<Table 15> Learning contents of forms

Publisher	Contents
A	• Learn about the One part form. A feeling of continuation, a feeling of ending
B	• Understand that the melody of each ab section is different
C	• None

초등 3학년 과정에서는 한도막 형식을 다루고 있다. 반영한 제재곡 수가 총 2곡 정도에 그치고 있고, C출판사의 경우 초등 4학년에서 다루고 있다. A출판사는 계속되는 느낌, 끝나는 느낌을 구별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B출판사의 경우도 가락선을 그려본 후 a와 b부분의 가락 또는 리듬을 구별하게 하여 한도막형식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형식을 반영한 제재곡에서 나타나는 기능은 <Table 16>과 같다.

<Table 16> Main functions of forms

Publisher	Expression					Appreciation			Practical application		
	Singing	Playing instruments	Expressing with body	Making	Expressing	Distinguishing	Expressing	Presenting	Participating	Researching	Presenting
A									None		
B	1			1		1					
C											
sum	1			1		1					

A출판사는 교사 설명 방식으로 형식을 안내하고 있고, B출판사는 노래 부르기, 만들기 기능을 채택하고 있는데 노래 부르기 경우 가락선 그리거나, a와 b부분 노랫말을 묻고 답하거나, 노랫말을 바꾸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형식’ 음악 요소와 개념 이해를 위해 노래 부르기 또는 노랫말 만들기 활동이 있으나 반영된 제재곡의 수가 적어 ‘형식’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8) 셈여림(Dynamics)

소리의 세고 여린 정도를 말하는 셈여림은 악곡의 분위기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음악에서 셈여림은 강과 약박에서 나타나는 셈여림과 셈여림 기호로 표현하는 셈여림이 있다. 여기서는 후자의 개념으로 제재곡에서 제시되고 있는 셈여림 기호들은 아래와 같다.

<Table 17> Learning dynamics of songs

Publisher	Contents
A	mp(mezzo piano), mf(mezzo forte)
B	p(piano), mp(mezzo piano), mf(mezzo forte), f(forte)
C	p(piano), mp(mezzo forte), mf(mezzo forte), f(forte), ff(fortissimo)

A출판사와 B출판사는 주로 표현 영역의 기능을 적용했고, C출판사는 표현과 감상 영역 기능을 적용하였다. 셈여림 학습에 채택된 기능은 <Table 18>과 같다.

<Table 18> Main function of dynamics

Publisher	Expression					Appreciation			Practical application		
	Singing	Playing instruments	Expressing with body	Making	Expressing	Distinguishing	Expressing	Presenting	Participating	Researching	Presenting
A	2	1							None		
B	2		1								
C	2	1			1	1	1	1			
sum	6	2	1		1	1	1	1			

학생들은 ‘셈여림’ 음악 요소와 개념 이해를 위해 주로 노래 부르기를 수행하면서 제재곡의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다.

9) 빠르기(Tempo)

악곡의 역동성을 표현하는 빠르기는 같은 곡이라도 빠르기 정도에 따라 그 느낌이 현저하게 달라진다. 대체로 악곡 감상한 후 빠르기와 그에 따른 분위기를 파악하는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A출판사는 같은 곡을 빠르기를 다르게 하여 그에 따른 느낌과 분위기의 차이를 알아보는 활동을 제시했고, B와 C출판사는 악곡의 빠르기 변화를 감지하는 활동을 안내하고 있다.

<Table 19> Learning tempo

Publisher	Contents
A	• The tempo and mood of the song, The feeling of the song when the tempo is different
B	• The tempo and mood of the song
C	• The tempo and mood of the song

빠르기를 반영한 제재곡에서 적용한 기능은 <Table 20> 과 같다. 학생들은 ‘빠르기’ 음악요소와 개념 이해를 돕는 노래 부르기, 신체표현하기, 악기로 연주하기 표현하기를 수행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감상 영역의 구별하기, 표현하기, 발표하기를 수행하도록 적용되고 있다.

<Table 20> Main function of tempo

Publisher	Expression					Appreciation			Practical application		
	Singing	Playing instruments	Expressing with body	Making	Expressing	Distinguishing	Expressing	Presenting	Participating	Researching	Presenting
A	3	2	2	1		1	2	4			1
B			1		1	1					
C						1	1				
sum	3	2	3	1	1	3	3	4			1

A출판사는 표현과 감상 영역 제재곡에서 빠르기를 반영하였다. 감상 영역에서 표현하기 기능은 악곡 감상 후 점, 선, 그림 등으로 표현하거나, 알맞은 신체표현하기 활동이다. 노래 부르기는 빠르기를 다르게 부르면서 그 느낌을 비교하는 활동이다. B와 C출판사의 경우 악곡과 어울리는 시나 그림 악보를 그려 표현하기, 장면에 어울리는 목소리나 악기, 물체 소리로 표현하기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빠르기’ 음악 요소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표현과 감상 영역의 제재에서 다뤄지고 있어 발표하기, 노래 부르기, 신체표현하기, 구별하기, 표현하기를 수행한다.

10) 음색(Timbres)

음색이란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와 구별되는 특징적인 소리의 느낌 또는 질을 말한다(Seung et al., 2019b, p. 201). 악기 소리, 목소리, 주변 환경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은 고유의 음색을 가지며, 함께 소리가 어울리는 과정에서 또다른 음색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악곡의 표현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는 요소이다. 음색을 반영한 제재곡별 학습 내용은 <Table 21>과 같다.

<Table 21> Learning timbres

Publisher	Contents
A	• (Voice, instrument, body, object) Find sounds in the surrounding scene
B	• Find a tone that matches the scene of the song • Voice, object sound, percussion tone
C	• Voice, object sound, percussion tone

A출판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장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소리를 소재로 하고 있어 목소리, 악기, 신체, 물체 음색 등을 다루고 있다. B출판사는 목소리와 타악기 음색을 다루는 제재곡으로 구분되어 있다. C출판사는 타악기와 물체의 음색만 다루었고 목소리 음색은 다루지 않았다. 음색을 반영한 제재곡에 나타난 기능은 <Table 22>와 같다.

<Table 22> Main function of timbres

Publisher	Expression					Appreciation			Practical application		
	Singing	Playing instruments	Expressing with body	Making	Expressing	Distinguishing	Expressing	Presenting	Participating	Researching	Presenting
A					1			1	None		
B	3	4	2	1	2	3		2			
C	1	3		2	1		1				
sum	4	7	2	3	4	3	1	3			

<Table 22>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음색’을 이해하기 위해 악기로 연주하기 기능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고 다음으로 노래 부르기, 만들기, 표현하기, 구별하기, 발표하기 기능이 적용되고 있다. 표현하기 기능은 목소리, 악기, 신체, 물체 등을 이용

한 창의적 표현을 의미(Ministry of Education, 2015)하며, 감상 영역에서는 소리, 언어, 그림, 신체 등의 다양한 방식의 표현하기(Ministry of Education, 2015)를 의미한다.

2. 음악 문해력을 위한 기능의 역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 문해력에 대해 음악적 관행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Barrett, 1998, p. 17)으로 설파한 바렛의 주장과 예술가처럼 독립적으로 음악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미국핵심음악기준은 2015 개정 음악 교육과정에서 ‘기능’의 역할을 다시 숙고하게 한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11가지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음악 지도서를 살펴본 결과, 각 제재곡마다 성취기준과 음악개념과 요소, 기능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기능’은 주요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 개념 이해를 돕는 음악적 활동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노래를 부르기, 신체표현하기, 악기를 연주하기, 주변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리듬과 가락을 만들기 등의 과정에서 음악적 이해를 촉진하고 있었다. 또한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으로 구분된 성취기준들에 비해 ‘기능’은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을 넘나들며 적용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기능은 영역의 구분, 영역별 성취기준 범주에 영향 받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음악적 활동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능은 수업 상황속에서 성취기준보다 유연하고 영향력 있게 작동하면서 학생들의 음악적 개념 이해는 물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하며 음악 문해력 신장을 돕고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21세기를 관통하면서 음악 문해력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 텍스트의 다양화에 따라 음악가처럼 음악에 반응하며 그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체화하고 있었다. 음악 문해력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핵심음악기준과 우리나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음악 문해력을 ‘음악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관점을 마련한 후 초등 3학년 음악 지도서 3종을 분석하였다. 음악 개념적 이해는 3~4학년(군)의 ‘음악요소와 개념’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기능’으로 제재곡들을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박과 박자는 일정박 치기와 박자가 가진 썸여림 학습을 신체표현하기와 노래 부르기 기능을 주로 적용하

며 수행하도록 하였다. 음의 길고 짧음은 간단한 리듬꼴과 병행하여 반영되었고 음표와 썸표 이름과 길이 등을 학습하는 활동과 리코더를 활용한 악기로 연주하기 기능을 적용하였다. 음의 높고 낮음은 주로 신체 표현하기를 적용하여 게이름 이해를 돕거나 감상영역에서 즉흥적으로 음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활동이 제시되었고, 악기는 주로 리코더를 활용하였다. 차례가기 뛰어가기의 경우 가락선 그리기를 통한 노래 부르기 와 멜로디언, 음판 악기 활동들을 제시하였다. 소리의 어울림의 경우 돌림 노래와 간단한 기악 합주, 리코더 2중주 활동을 적용하고 있었고, 말 리듬, 신체 타악기에 의한 어울림도 포함하고 있다. 형식은 주로 한도막 형식을 다루고 있는데 문답으로 통한 노래 부르기와 신체표현하기 활동으로 a와b를 구별하게 하였다. 썸여림은 신체 표현을 선행 배치하였고, 박자의 썸여림을 노래로 표현하거나, 감상 제재에서 신체 표현하기를 적용하여 썸여림을 표현하게 하였다. 감상 영역에서 주로 반영된 빠르기의 경우 그 변화에 따라 곡의 느낌과 분위기를 동물의 움직임을 떠올려 신체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음색은 악기, 목소리, 신체, 물체의 음색,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음색을 탐색하는 활동으로 주로 악기 연주하기 기능을 적용했고, 최종적으로 음악회를 통한 참여하기, 발표하기 기능들을 적용하고 있다.

세 출판사 모두 노래 부르기 기능을 압도적으로 많이 적용하지만 정작 노래 부르기를 정련할 수 있는 제재곡 편성은 많지 않았다. 악기로 연주하기는 리코더, 음판 악기, 멜로디언, 무선울 타악기 등을 활용했는데 리코더는 단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제재 곡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신체표현하기는 신체타악기 활동과 신체를 활용한 표현하기 활동을 제시하였다. 만들기는 간단한 리듬꼴, 노랫말, 신체표현을 만드는 활동에 적용되고 있었다. 표현하기는 표현과 감상 영역 양쪽에 포함된 기능이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활용되는 도구는 글, 그림, 신체, 물체 등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구별하기는 음색의 차이 구별, 음의 길고 짧음 구별, 썸여림의 구별 및 형식 개념에서는 계속 되거나 끝나는 느낌을 구별하거나 빠르기의 차이 등을 구별하는 활동이 제시되었다. 발표하기와 참여하기는 학생들에게 교실 공간을 넘어 발표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음악 교과 교육의 탐구과정 및 사고 과정인 기능은 수업을 보다 음악적으로 디자인되도록 기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음악 교과 고유의 기능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적용할 때 수업 속에서 음악이 살아나고 학생들은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즉 음악 개념적 이해가 기능으로 실현될 때 학생들의 음악 문해력이 신장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학생들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음악 문해력 기반의 수업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후속 연구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arrett, M. S. (1998). I hear what you mean: Music literacy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e. In J. Livermore (Ed.), *More than words can say* (pp. 33-42). Canberra, Australia: Australian Centre for Arts Education.
- Best, H. M. (1990). Toward a concept of musical literacy: K-12. *Design for Arts in Education*, 92(1), 2-10.
- Broomhead, P. (2010). (Re)imagining literacies for music classrooms. In R. J. Draper, P. Broomhead, A.P. Jensen & J.D. Nokes (Eds.), *(Re)imagining content-area literacy instruction* (pp. 69-81).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Broomhead, P. (2019). *What is music literacy?* New York: Routledge.
- Choi, E. A. (2017). A study on the instructional design plan for developing musical literacy.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31, 61-77.
- Choi, M. Y. (2008). A study on secondary school music curriculum in New York. *Music and Culture*, 18, 139-166.
- _____ (2015). The analytical consideration regarding American national core music standards.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23, 79-98.
- _____ (2021). Structuralization of music unit based on backward curriculum design model. *Research in Music Pedagogy*, 22(2), 181-207.
- Calvin, S. B. (1947). Musical illiteracy. *The Georgia Review*, 1(1), 28-34.
- Choi, N. Y. (2015). The meaning of presentational forms of curriculum contents in the U.S. national core music standards based on the backward design.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25, 75-98.
- Csikós, C., & Dohány, G. (2016). Connections between music literacy and music-related background variabl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Visions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8. Retrieved from <http://www.rider.edu/~vrme>
- Estelle, R. J. (1981). School music performance programs and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musical literacy": A theoretical model. *College Music Symposium*, 21(1), 82-93.
- Jerrold, L. (1990). Special issue: Cultural literacy and arts education. *Th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24(1), 17-30.
- Kim, S. W., & Eom, G. H. (2020). *Will YouTube devour books?* Seoul: Tabibooks.
- Kim, S. Y. (2015). *Practical approach to the curriculum literacy of elementary school*

-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S. Y., & So, K. H. (2021). Exploring the way of designing the content system for the competency-based music curriculum: In comparison with the music curriculum in British Columbia, Canad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2), 39-68.
- Kokkidou, M. (2018). Postmodernism, music literacies, and the function-oriented music curriculum. *Visions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2. Retrieved from <http://www.rider.edu/~vrme>
- Lee, B. L. (2020).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musical transfer-based appreciation class model*.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K. E., Jang, G. J., & Park, J. H. (2012). Suggestions for content and improvement of achievement standards in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1), 113-140.
- Lee, K. W., Ohn, J. D., & Baek, N. J. (2014). Subject curriculum content composition and achievement standard statement method exploration. *Korean society for curriculum studies the 2nd national curriculum expert forum*. Chungnam: Chungnam University.
- Ministry of Education (2015). *Music curriculum*. No. 2015-74. [Supplementary 12].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18a). *Music textbook for grade 3 teacher's guide book*. Seoul: Visang.
- _____ (2018b). *Music textbook for grade 3 teacher's guide book*. Seoul: Chunjae Textbook.
- _____ (2019). *Music textbook for grade 3 teacher's guide book*. Seoul: MiraeN.
- Oh, J. H. (2018a). The meaning of multiliteracy education and methods of practicing multiliteracies in music education. *Teacher Education Research*, 57(4), 601-616.
- _____ (2018b). The need for and measures to strengthen 2 role of media literacy education in music.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3(1), 27-48.
- Park, J. H. (2017). An exploration on the key competency for enhancing musical literacy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4), 723-731.
- Park, J. H., & Kim, J. H. (2021). Exploring the composition of new music curriculum according to the direction(draft) of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in 2022. *Korean*

-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3), 57-77.
- Seog, M. J., & Choi, M. Y. (2011). The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n music curriculum through the analysis of foreign music curricula.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9(2), 145-172.
- Seung, Y. H., Ham, H. J., Kwon, D. W., Jung, J. E., Shin, J. H., Oh, J. H., Choi, E. S., Seog, M. J., Choi, M. Y., Chung, J. W., & Yoon, M. J. (2019a). *World music curriculum*. Paju: Kyoyookbook.
- Seung, Y. H., Min, K. H., Yang, J. M. & Chung, J. W. (2019b). *Music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Seoul: Hakjisa.
- Shin, E. J. (2021). Changing lyrics centered on musical concepts as a music-making activity in elementary schoo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1), 51-79.
- Song, J. J. (2021). Analysis of body movement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and teaching guid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3), 99-132.
- Waller, D. (2010). Language literacy and music literacy.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Review*, 18(1), 26-44.
- Yang, J. M., & Park, E. B. (2020). Analysis of the sequence of Kodály's material for musical reading and writing.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1), 145-173.
- Yoon, J. C. (2009). The concept of literacy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New Language Life*, 19(2), 5-16.
- Yoon, S. W. (2020). A study on the music subject literacy.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43, 1-19.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 자료]

National Coalition for Music Education (2014).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Retrieved October 21, 220, from <http://nafme.org/my-classroom/standards/>